

시간을 이어가는 군산의 이야기

Stories Connecting Time in Gunsan

저자 Author: 손채영 Sohn Mirabel Chaeyoung
건국대학교 박사과정 Ph.D. Program, Konkuk University

디자인문화이론과 한국디자인사를 연구하며,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 숨겨진 이야기와 가치들을 발견하고 이를 사람들과 소통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

투고일 2024년 12월 30일
심사완료 및 게재확정일 2025년 1월 27일
게재일 20254년 2월 28일
Received date 30 Jun. 2024
Review completed and accepted date 27 Feb. 2024
Publishig date 28 Feb. 2025

PP.234–237
p-ISSN. 2765-2572
e-ISSN. 2765-7825

한국디자인사학회 Design History Society of Korea
특집 기획: 디자인 기행 Special Feature: A Short Design Field Trip

엑스트라 아카이브 10 Extra Archive 10
디자인사연구 Journal of Design History

234235

시간을 이어가는 군산의 이야기

(1) 근대를 마주하다

군산은 일제강점기 시대의 옛 건물이 지닌 역사적 의미를 보존하며, 도시 곳곳에 쌓인 근대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다. 군산은 가옥을 비롯한 근대 건축물들이 남아 있어, 걷는 길마다 오래된 시간의 흐름이 스며든 풍경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원도심 지역은 근대 상업과 유흥, 행정이 집결했던 중심지였던 터라, 거리의 구조를 통해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여준다. 또한, 군산 원도심은 채만식의 소설 『탁류』의 배경이 된 곳으로 역사와 문학의 숨결이 깃든 공간이다. 실제 『탁류』의 배경이 된 위치마다 ‘군산 탁류길 코스’가 잘 조성되어 있다.



[그림 1] 군산 박물관 통합 투어후(박물관, 미술관, 건축관, 위봉함) 호남관세박물관 앞

『탁류』는 1930년대 일제 강점기 군산을 배경으로 하여 도시 구조를 생생히 묘사하고 있다. 당시 조선인과 일본인은 분리된 주거지에서 생활했으며, 이러한 공간적 분리는 근대화와 도시화 과정에서도 배제되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소설에 등장하는 ‘둔뼨이’와 ‘콩나물 고개’는 조선인 거주지를 대표하는 상징적 장소로, 열악한 환경과 주거지 간의 물리적, 시각적 격차를 드러낸다. 이 두 공간은 단순히 특정 지역의 묘사를 넘어, 당시 조선 사회의 계층적 차별과 빈곤을 나타내고, 군산이라는 도시 내에서 사회적·경제적 계층이 어떻게 구분되었는지 보여주었다. 군산의 원도심을 걸으며 소설 속 배경과 당시 생활 환경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 군산 원도심 골목을 지나 바닷가 쪽으로 걷다 보면 ‘근대건축관’이 나온다. 군산의 근대건축관은 『탁류』에서 나온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이다. 당시 조선은행 근처는 군산의 변화가이자 상업 지역 거점이었다. 이 은행 기점으로 일본 상인들이 상권을 장악하여 부정부패가 만연했던 상황을 소설 속 초반 배경에서 이야기한다. 이는 조선은행이 식민지 시대 경제 구조로서 중요한 공간적 장치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건물이 위치한 구역은 한 때 경제와 무역의 중심지였으나, 지역 쇠퇴와 도시 집중화로 인해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졌다. 과거 군산의 경제적 번영과 식민지적 권력 구조를 대표했던 이 건물은 이제 근대화의 흔적을 되돌아보게 하는 장소가 되었다. [그림 1]

(2) 과거를 품고 내일을 걷다

‘군산’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곳은 ‘이성당’이다. 1920년대 초 일본인이 세운 ‘이즈모야’ 화과점을 1945년 광복 직후 인수하여 설립한 이성당은 한국 최초의 제과점이다. 이성당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빵집이기도 하다. 이성당은 과거의 공간미와 정서를 살려 다양한

메뉴와 패키지를 선보이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단순히 ‘오래된 빵집’을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과거와 현재가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식음료 문화를 만들어 냈다.



[그림 2] 군산의 초원사진관과 영화골목의 정취

그리고 군산은 근대 문화유산이 많은 곳이라 자연스럽게 영화 촬영 장소로 많이 쓰였다. 이에 ‘영화의 거리’를 따로 만들었고 영화 포스터와 벽화로 꾸며놓았다. 영화의 거리를 걷다 보면 ‘초원 사진관’이 있는데 ‘8월의 크리스마스’(1998) 영화 촬영지로 유명하다. 초원 사진관은 원래 허름한 차고지를 개조해서 영화 촬영 세트장을 만들어 사용했다. 이후 철거했다가 오래된 사진관으로 다시 복원했고 한다. 초원 사진관 내부는 영화 촬영에 쓰였던 오래된 카메라 장비들과 사진 액자, 가구 등 그대로 재현해 옛 시절의 분위기를 온전히 체감할 수 있었다. 더불어 거리 주변에 레트로 콘셉트를 살린 카페와 식당을 볼 수 있고 군산의 골목과 일부 낡은 간판을 통해 시간이 겹겹이 쌓여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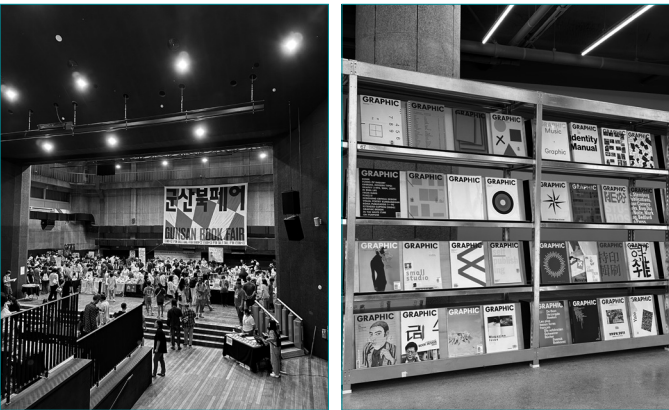
군산의 원도심을 지나 옛 시가지 일대를 쫓 거닐다 보면, 최근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탄생한 ‘도시재생홍보골목길’이 나온다. 이곳에서 1962년 건축물이 170채나 모여 있는 곳에서 오래된 골목과 건물을 새롭게 조성했다. 낡은 담벼락과 간판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관광객들에게는 볼거리와 사진 명소를, 지역 주민들에게는 문화적·경제적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오래된 건물 특유의 정취를 살리면서도, 전시와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과 이야기가 오가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장소적 특성은 군산만의 ‘색다른 레트로 감성’을 만들었다. 이는 오래된 건물이나 골목이 새로운 문화적 기능을 부여받아 과거와 현재가 한자리에서 공존하며 ‘뉴 레트로(new-retro)’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다.

이어 군산의 정취가 담긴 공간에서 처음으로 ‘군산 북페어’가 열렸다. 군산 북페어는 군산을 문화적으로 확장한 전시다. 여러 독립출판사와 협업하여 도시와 책이 가진 스토리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군산 북페어는 ‘지속 가능한 문화유산의 보존’을 넘어 일상생활 속에서 실현할 수 있는 군산의 근대적 장소성을 잘 활용했다. [그림 3]

군산은 ‘시간을 잇는 도시’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과거의 미감을 느끼게 해 주는 카페, 근대의 모습이 가득한 거리에서 펼쳐지는 여러 식당과 가게들. 각각의 자리에서 과거와 현재가 함께 호흡하며, 미래를 위한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간다. 또한 군산은 디자인과 문화가 빛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었다. 근대 문화유산을 단순히 ‘옛것’으로

한국디자인사회 Design History Society of Korea
특집 기획: 디자인 기획 Special Feature: A Short Design Field Trip
엑스트라 아카이브 10 Extra Archive 10
디자인사연구 Journal of Design History

236237



[그림 3] 군산 북페어

두는 게 아니라, 과거의 기억을 보존함과 동시에 현재의 문화를 함께 지속될 무대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군산의 거리를 걸을 때마다 느낄 수 있는 잔잔하게 축적된 시간의 결, 그리고 시각적으로 재구성된 공간은 과거가 여전히 살아 숨 쉬며 다음 세대의 추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말없이 보여준다. 📖